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인국빌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빌딩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호장 노대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2월 18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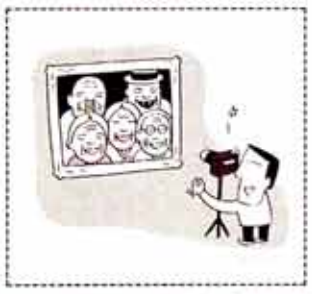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6일 오전 불우노인들이 모여사는 삼천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인덕원.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유종산씨(47 · 기능직 9급)가 들어서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친자식처럼 반긴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죠?" "예구 젊은 양반이 기특하기도 하지."

유씨는 55명의 노인들에게 일일히 액자에 담긴 영정사진을 건넸다. 지난 1월말 이곳에 와서 노인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때만 해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나진 않았었는데 오늘따라 왜그런지 자꾸 눈물이 흐른다. "내 생전에 이런 사진은 처음이구먼"하고 주름을 펴고 웃는 할아버지와 아무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긴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유씨는 선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고향 당진에서 서울에 올라 온 이듬해인 81년.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의 임종을 맞았다. 평생 농사와 자식밖에 몰랐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영결식장에서만이라도 뚜렷이 기억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진이 없어 궁리끝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해 걸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30년을 넘게 탈아 온 아버지의 자애를 흐릿한 사진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뼈에 사무쳐왔다.



유씨는 이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독거노인 등 불우한 노인들을 찾아 영정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경비는 자비로 부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준 노인들만해도 벌써 2백명이 넘는다. 고향에 있을 때부터 틈틈이 익혀둔 촬영기술이 큰 도움이 됐다. 박봉을 쪼개고 숙직비를 보태고 심지어는 휴일과 휴가를 이용, 막노동이나 결혼이벤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경비를 충당해 왔다.

"언제까지고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제가 찍어드린 사진은 남지 않겠습니까" 유씨의 일터는 화려한 무대와는 동떨어진 세종문화회관 지하2층 보일러실. 18년의 세월을 음지에서 일해왔지만 유씨는 밝은 조명아래 선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한명우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검토

인수위 金당선자에 보고 "국고지원 국민부담 완화"

새정부 출범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국립공원 이용객들에게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2중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입장료를 없애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국립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의 쓰레기 처리및 행락객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공원 생태보전및 연구는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입장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입장료수입 2백1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고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안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이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로 마찰을 빚은 것과관련, 김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진'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위의 보고내용이 전해진 교계에서는 "공원입장료 폐지는 이미 여러 측면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안이며 작년 정부와 약속됐던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들은 공원입장료의 폐지와 관련, 사찰이 관람료만 단독징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에 상응하는 소장 문화재 안내의 질적 향상과 문화재 소개 책자의 보급등 능동적인 포교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문화재 관람료 단독징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와 수행환경의 보존을 위한 방안 마련도 관람료 징수 사찰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연태 기자〉

"北 경수로 현장에 목탁소리"

신포금호지구 한국근로자 불자모임 '연꽃회' 발족

1월 25일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 10평짜리 콘테이너공간에서 힘찬 반야심경 독경소리가 울려퍼졌다. 한전 원자력 건설본부 김경철과장(44, 현담)이 주축이 돼 경수로 근로자 불자모임 '연꽃회'를 발족하고 첫 법회를 여는 순간이었다.

강남 봉은사 거사대학을 졸업한 김경철회장을 비롯, 목탁을 가지고 와 법회때마다 직접 의식을 집전하는 박관엽보살(아라코), 신재택부장(한전), 남중선과장(합동시공단), 노창우씨(기흥건설)등 17명이 연꽃회를 일궈낸 회원들이다. 한전, 현대, 대우, 동아 등 협력업체 직원 150여명이 근무중인 이곳에서 지금까지 1월 25일, 2월 1일, 8일 3차례 법회를 가졌다.

김회장은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서로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생활하는 이곳 북녘땅 연꽃회에서 정법을 배우고,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김회장 전화인터뷰 3면〉

연꽃회 결성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조만간 작은 불상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금강저를 들고 있는 동방 지국천왕..

감은사 사천왕상 1300년만에 '햇빛'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지난 96년 4월 경주 감은사 동3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유물 20여점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12일 일반에 공개했다.

1천3백년만에 제 모습을 드러낸 금동유물들은 사천왕, 스님, 사자, 용 각각 4점과 사리기 지붕을 장식한 비천 등 모두 3㎝미만의 소형상이다.

조계종 사미(니) 의제 확정발표

구족계 수지자에게만 '스님호칭'…3월 시행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은 10일 '사미 · 사미니의 명호와 의제, 신분증 제도 개선' 등 승가위계확립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미 · 사미니계 수지자의 명호는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로 하며, 스님의 호칭은 구족계 수지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사미 · 사미니 의제는 적삼 · 동방 · 두루마기는 깃과 소매에 장삼은 깃에 가사색 띠를 둘러야 한다. 사미 · 사미니증 제도는 97년 제13기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 · 사미니계 수지자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사미 · 사미니 의제령은 95년 1월1일 이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 19일 입법예고와 함께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사미 · 사미니에 대한 호칭과 의제에 대한 종단입장의 확립은 조계종의 위상을 바로잡고, 질서를 정립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계종 동안거해제 방장법어 3면
외제 판치는 불교미술품 23면

구독료 '은행 자동이체' 안내

현대불교신문사는 구독료 납부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은행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 IMF시대의 구독료 납부체계인 '은행 자동이체'에 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신청하신 다음달부터 이체가 됩니다. 1년단위로 구독료를 선납할때는 4만원(17%할인)입니다. 자동이체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방법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대리인도 가능) (준비물) △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현대불교신문 해당은행 계좌번호

● '현대불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중앙회	053-01-227471
한일은행	082-031951-01-201
신한은행	324-05-012374
조흥은행	322-03-003141
주택은행	504537-01-000064
외환은행	150-22-01008-2
기업은행	024-022451-04-012
제주(지방)은행	50-01-124050
제일은행	100-20-144861
서울은행	15508-2269109
광화은행	052-25-0001-512
보람은행	002-22-00951-0
한미은행	100-51057-2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를 한후 본사에 연락 바랍니다.
담당: 현대불교신문 관리부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온 대지가 새롭게 깨어나는 봄의 길목 3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 진종선사(1864~1940)의 오도현장이며 신라불교의 초전지인 선산 모례원 · 도리사, 용성스님 유물전이 열리고 있는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대각사를 찾아 스님의 대각교 운동과 독립정신을 기립니다.

3 · 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한문불경 번역과 찬불가 작곡 그리고 선농일치(禪農一致) 주창 등 대중포교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현장에서 새겨보세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발자취

독립기념관 모례원 도리사 서울대각사

◇출 발: 3월 15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나라가 어려울 때,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 6 차 전국
염불만일회 念佛萬日會

지금까지
모든 선지식(先智識)들이 권해왔고
가장 하기 쉽고, 가기 쉬운
깨달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고된 길을 택하거나
오히려 쉽다고 외면하거나,
낮은 수준의 신도들이 수행하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된 실천수행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신라시대부터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선각자들이 끊임없이 지켜가고자 노력했던
평생염불(平生念佛), 염불만일(念佛萬日)
정신을 일으켜 신앙의 힘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
21세기 새시대를 바라보는 불교중흥의
큰 힘을 이루고자 각사찰, 신행단체,
뜻있는 일반불자들이 한데 모여
불자의 이름으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를 결성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염불만일회 (念佛萬日會)란?
⊙ 제 1 차 : 신라 758년(경덕왕 17년) 에 발징화상이 건봉사에서 최초로 염불만일회 개최
⊙ 제 2 차 : 1802년(순조 2년)에 건봉사 전통이어 결성
⊙ 제 3 차 : 1851년에 벽오유총 스님을 회주로 결성
⊙ 제 4 차 : 1881년에 만화관준 스님을 회주로 결성
⊙ 제 5 차 : 1908년에 금암의중 스님을 회주로 결성

제 6 차 전국염불만일회 이렇게 추진합니다.
1. 염불만일회 학술 세미나 개최
▶ 기간: 98. 5월~8월(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 내용: 정토학자 초청 토론회
2. 염불만일회 성지대회 개최
▶ 건봉사 성지대회 (98년 8월 5일~7일)
▶ 매년 1~2회 강원도 건봉사 외 전국 유명 아미타 도량 성지대회 (은해사, 미황사, 백련사, 등)
3. 전국 염불만일회 실천수행 협의체 구성
▶ 회원관리, 수행법교육, 포교활동을 회향(2025년)까지 전국염불만일회를 조직하여 충실히 수행합니다.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년 1만원
▶ 가입방법 :전화 및 우편(사무국:(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종합안내서를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협: 053-02-128104 우체국 : 013029-0024268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TEL: 02) 732-1215~7 FAX:732-1207

전 국 염 불 만 일 회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대표:김해장스님 (건봉사 주지)
한보광스님 (동국대 교수)
김재일법사 (동산반야회장)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